

컴플라이언스의 생활화



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끝>

그간 기고를 투고하며 '컴플라이언스'라는 주제에 대해 어떻게 쉽게 설명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 기고를 통해 법적인 지식을 전달하는데 목적을 두기 보다 주제에 하나만이라도 기억되도록 했는데, 이런 의도가 잘 전달됐기를 바란다.

기업이 활동을 영위하는 동안 겪는 컴플라이언스의 분야는 상당히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때문에 다뤘던 주제도 폭이 넓다. 다시 정리해보자. 먼저 계약서 작성시에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주체를 특정시키는 요소를 명확히 명시하고, 주요 상거래의 경우는 인터넷 등에 공개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을 잘 숙지하고 주의하는 것은 기본이며, 해외자금관리는 리스크가 상당함도 명심해야 한다. 회사 내에서도 다양한 비위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회사 내 생성 문서의 관리 연한과 방법을 숙지해

야 추후 문제가 발생해도 대응이 용이해 진다. '소수주주권'을 통해 회사의 소수주주와 회사 사이의 건강한 관계 형성이 가능하며, '주주간 계약'으로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회사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일률적이지 않다. 업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고, 업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법률과 규제를 확인해야 하며,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 방지의 정도는 회사의 규모와 성장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공격적인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리스크 방지에 초점을 두기보다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 한 경우가 있으며, 안정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현재까지의 성장 과정에서 간과했던 리스크를 확인하고 방지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컴플라이언스는 각 업의 특성, 회사의 규모와 성장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 달리 진단되고 적용돼야 한다.

변호사로서 수행하는 기업자문업무는 이러한 컴플라이언스의 일환이다. 직접적으로는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고, 기업의 비위 직원에 대한 감사업무를 대리해 진행하기

도 한다. 또, 회사의 계약서 전체를 검토해 리스크가 있다면 미리 수정이 되게 하거나, 향후 실수를 재발하지 않도록 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 인수 과정에서 리스크를 확인하고, 리스크 때문에 손해를 입지 않도록 계약서를 체결하기도 한다. 나아가 원만한 협업이 이루어져 서로가 원활할 수 있는 공동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이때 원칙은 어떤 경우든 일방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종국적으로 회사의 이익이 우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회사를 둘러싼 주주, 채권자, 거래처, 임직원 등의 구성원 등 수많은 이해 관계자들을 고려할 때 당연한 선택이다. 그만큼 컴플라이언스를 다루는 변호사로서의 책무도 무겁다고 할 수 있다.

처음 시작하면서도 밝혔지만, 컴플라이언스는 불편해하거나 혹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컴플라이언스는 기업 차원을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해주는 원동력이며, 규칙이다. 사회 각자의 영역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준법정신의 테두리 하에서 각자가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길 바라본다. 그리고 공정함을 토대로 지속적인 성장, 발전이 가능한 사회의 도래를 꿈꿔본다.

/법무법인 바른



NH농협생명, 폭염 피해농가 방문·지원 논의

NH농협생명은 지난 8일 경기 여주시 강천면 도전4리 마을을 찾아 마을 주민과 농작물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지원책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서기봉 사장은 폭염 피해 지원을 위해 ▲최대 6개월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 부활 연체이자 면제 ▲대출 이자납입 및 할부상환금 6개월 유예 ▲대출 재약정 및 기한연기 등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서기봉 사장(가운데)이 이광수 여주농협 조합장(왼쪽)에게 피해상황을 듣고 있다.

/NH농협생명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제2회 여수 문화체험캠프 진행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2부 3일간 여수 문화체험캠프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선발된 중학생 6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팀별로 배정된 대학생 멘토와 함께 오동도, 이순신광장, 하멜전시관, 오포대 등 여수 주요 명소별로 정해진 미션을 수행하며, 탐방지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



KT&G, 印尼서 주민공공센터 완공식 개최

KT&G는 지난 8일 대학생 해외봉사단과 함께 인도네시아 치카랑의 '아스리(Asri)' 마을에서 주민공공센터 완공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봉사단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대학생 54명, KT&G 직원 등 모두 6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7월 30일부터 10일간 건축 및 교육 봉사를 진행했다. 압둘 로힘 인도네시아 산업부 국장(가운데 노란 옷)과 KT&G 인도네시아 해외봉사단 및 현지 대학생 봉사단, 아스리 마을주민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T&G



롯데제과, '국제청소년의 날' 맞아 과자 지원

위한 제품 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다. 롯데제과는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특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안동영명학교'에 파이, 스낵 등 과자 700박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또한 롯데제과는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되는 청소년 대상 '웅복합창작캠프'를 지원하기 위해 '성북문화재단'에 카스터드, 초코파이 등 과자 365박스를 전달했다.

롯데제과가 '국제청소년의 날'(8월 12일)을 맞아 청소년을

/롯데제과



2018. 08. 07

롯데푸드 파스퇴르, 뉴질랜드 스프링 쉽 MOU

롯데푸드 파스퇴르는 지난 7일 뉴질랜드 스프링 쉽(Spring Sheep Milk, Co New Zealand)과 양유(羊乳) 제품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롯데푸드 파스퇴르는 2019년 양유를 활용한 어린이 제품을 도입하고, 2020년에는 영유아용 양분유를 론칭해 장기적으로 중국시장까지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롯데푸드 김용기 파스퇴르 본부장(왼쪽)과 뉴질랜드 스프링 쉽 스코티 채프먼 CEO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푸드

보물선은 '보이는 희망' 이었다



기자 수첩

이범종
(정책사회부)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 150조원짜리 보물선 논란으로 화제를 모은 '돈스코이'호 전설의 결말이다. 이 배를 내세워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였다고 의심받는 신일해양기술(옛 신일그룹) 대표 최용석씨가 9일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설립자인 류상미 전 대표도 같은 날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지난달 26일 사기·다단계 판매의혹과 관련 없다며 기자회견을 연 지 보름만이다.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를 내세워 암호화폐 투자를 모집한 '싱가포르 신일그룹'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많지 않아보인다.

기자회견 당시 최 대표는 돈스코이호를 내세워 암호화폐를 팔아온 싱가포르 신일그룹과의 관계에 대해 "급하게 설립해 누리집을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이름이 같은 싱가포르 신일그룹의 누리집을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최 대표는 지난 1일 세간의 비난을 견디지 못하겠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가 기자회견에서 말한 도의적 피해보상은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누리집에서 암호화폐 신일골드코인(SGC) 추가 지급으로 공지됐다. 이곳이 보물 인양 시 15조원을 배당하겠다고 공언한 싱가포르 신일그룹의 SGC 판매처다.

최 대표의 말대로 두 회사가 관련이 없다면, 싱가포르 신일그룹이 그의 이름을 멋대로 사용한 셈이다. 싱가포르 신일그룹은 현지에 사무실 하나 없는 페이퍼컴

퍼니로 알려졌다.

현재 두 회사의 누리집은 모두 사라졌다. 지난달 20일 투자 모집책 A씨는 "(투자) 마감 시한이 지났어도, 이전처럼 자정까지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된다"고 안내했다. 당시 회사는 해당 1200원인 SGC를 9월 1만원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 최 대표가 경찰에 소환된 9일 A씨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문의전화 때문에 쉴 틈이 없었다"는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피해 규모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허황된 보물선 이야기는 어째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을까. 치솟는 집값과 청년 실업률에 허우적대는 누군가에게, 보물선은 '보이는 희망'이었을지 모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최소 구매액 100만원을 내밀었을 어떤 이의 심정은, 비트코인 존버족과 크게 달랐을까.

joker@metroseoul.co.kr

인사

◆ 해양수산부 ◇ 과장급 전보 △ 해양개발과 장 오행록 ◇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성열산

◆ 국세청 ◇ 부이사관 승진 ▲ 본청 감사담당관 박해영 ◇ 본청 조사1과장 김진호 △ 성동세무서장 이성진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

1국장 이현규

◆ 부산항만공사 △ 신항미래전략실장 박호교 △ 신항다목적부두운영단 운영기획실장 박호철 △ 신항다목적부두운영단 안전관리실장 최형락

◆ 에너지경제신문 △ 지방부장 유원상

부음

▲ 김명순 씨 별세, 장순일(전 프로야구 SK 와이번스 사업본부장) 씨 모친상 = 8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 발인 11일 오전 7시 30분. ☎ 02-3410-3151

▲ 박일봉씨 별세, 박희성(KBS교향악단 사장)씨 부친상 = 8일 오후 10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1일 오전 6시 ☎ 02-2258-5940

▲ 유재호 씨 별세, 유인영(청주시 용암1동 팀장)씨 부친상 = 8일 오후 5시,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0일 오전 9시. ☎ 043-279-0144

▲ 권영희 씨 별세, 권오웅·미정 씨 부친상,

박찬식(경향신문사 독자서비스국 부장) 씨 장인상 = 8일 오후 9시 47분, 대구기독병원 장례식장 특실 1호, 발인 10일 오전 9시 30분. ☎ 053-627-4447

▲ 소군섭(전 조흥은행 지점장)씨 별세, 소재광(전 신한지주 부사장)·소성희씨 부친상 = 8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11일 오전 9시. ☎ 02-3410-3151

▲ 우승환씨 별세, 최춘자씨 남편상, 우원균(원우시스템즈 대표)·부영(미국 샌디에고 공무원)·상균(엑스포츠뉴스 대표)씨 부친상, 김의중(미국 퀸컴 연구원)씨 장인상, 최이선·배영진씨 시부상 = 8일 오후 6시 16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7시 30분. ☎ 02-2258-5940

▲ 유재호 씨 별세, 유인영(청주시 용암1동 팀장)씨 부친상 = 8일 오후 5시,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0일 오전 9시. ☎ 043-279-0144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8
TEL: 02) 721-9800, FAX: 02) 730-1551
발행·편집 인원 이장규
인쇄 인원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 721-9851, 9826
독자센터 02) 721-9861
일간메트로 00206
2002년 5월 28일 제 4017 호
일간메트로경제 서울 가 50111
2017년 3월 09일 제 0111 호

위한 제품 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다. 롯데제과는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특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안동영명학교'에 파이, 스낵 등 과자 700박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또한 롯데제과는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되는 청소년 대상 '웅복합창작캠프'를 지원하기 위해 '성북문화재단'에 카스터드, 초코파이 등 과자 365박스를 전달했다.

롯데제과가 '국제청소년의 날'(8월 12일)을 맞아 청소년을

/롯데제과